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 목사

김원재, 양명철

## 주일예배

|        |  |       |
|--------|--|-------|
| 오전 11시 |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       |
| 교회소식   |  | 말은이   |
| 찬양*    |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br>주를 예배합니다<br>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br>주님 내 마음 모아 | 다같이   |
| 기도인도   |  | 인도자   |
| 봉헌*    |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찬 633)                                       | 다같이   |
| 말씀교독   | 사도행전 1:1-5   | 다같이   |
| 말씀선포   | “성령으로”   | 김원재목사 |
| 찬양과결단* |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 다같이   |
| 축도*    |  | 설교자   |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화요일 저녁 7:30에 “생명의삶” 공부가 있습니다.
3. 오전 5시 30분(월~토)에 드리는 영상 새벽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교역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버지 주일을 6월 21일(아버지날)로 연기합니다.
5.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로, 새벽기도회는 Zoom을 통한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송금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재 예배당 건축이 주지사의 명령에 의해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아버이주일을 연기합니다

오늘은 어머니날입니다. 또한 교회력으로는 아버지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이지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만 특별히 아버지주일을 아버지날인 6월 21일 주일로 연기합니다. 5월 둘째 주일인 10일 오늘도 우리는 아직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6월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것이라 기대하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따로 없고, 5월 8일을 아버지날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키는 날짜는 서로 다르지만,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날인 5월 8일이 불효자 면죄부 주는 날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던 자녀들이 이 날만 부모님께 선물 드리고 카드를 쓰며 그동안 불효를 벌충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식목일, 생일, 독립기념일 등은 일 년에 한 번 그 날을 기념하거나 축하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날은 일 년 내내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다가 이 날을 특별히 더 강조하는 날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 년 하루 그날만 잘하자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부모(아버지)로 호칭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을 주시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이 부모의 사랑이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도 숭고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크고 조건 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데, 사람 사이에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은 자라고, 성숙해가고, 사회적 존재로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버지주일은 연기되었지만, 우리 존재의 뿌리, 사랑의 뿌리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2,442